

성경 예언 해설집 <6화>

시므온과 레위의 범죄

(지난호에 이어서)

아굽은 딸이 구경갔다가 납치당하여 욱을 당하고 딸을 욱보인 당사자가 청혼할 때 분하고 패심하나 딸이 경솔하게 혼자 구경가도록 허락한 것을 후회하였다. 오빠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는 노기가 폭발하여 세겜 사람을 멸종하려고 모의하였다. 그들은 추장 부자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할례 없는 사람들과는 절대로 혼인할 수 없으니 우리 동생을 돌려보내라”고 추궁하였다. 그들은 다나가 마음에 들고 아들은 다나와 정이 깊어지므로 세겜 성 사람들 전체가 할례받을 것을 약속하고 돌아갔다. 추장의 명령은 왕의 명령과 같으니 세겜의 남자들은 빠짐없이 할례를 받았다.

본문에는 할례 행사에 시므온과 레위가 참여하였다는 기사가 없으나 그들은 세겜 성 남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할례받도록 감독하고 할례 방식도 시범을 보였다.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받으니 통증이 심하여 신음 소리가 집집마다 진동하였다.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 사람을 전부 죽이려고 칼을 들고 세겜 성을 급습하여 통증으로 신음하는 남자들을 잔인하게 찢어 죽였다. 세겜 사람들은 대항도 못하고 비명을 지르면서 많은 사람이 억울하게 죽어갔다.

아굽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두 아들이 신성한 할례를 악용하여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로 당시에도 아들에게 징계하였으나 그들의 죄악이 너무 크므로 축복하는 성스러운 집회에서 살인죄를 적용하여 저주를 내리고 그들의 자손은 모여 살지 못하고 흩어져 살 것을 말하였다.(창 34:1-31)

유다에 관하여

본문(창 49:8-11)

유다야,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흘(傷)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메시아)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실로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해설

유다는 형제들에게 사랑을 받을 것을 말하였다. 유다의 행적을 살펴보면 선행과 악행이 기록되었으나 악행을 숨기고 벌하지 않은 것은 죄가 소멸된 것이 아니고 심판자(실로)가 오실 때까지 보류시킨 것이니 유다의 죄악은 오늘에야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유다의 선행을 열거한다면, 형제들이 동생 요셉이 미워서 깊은 구덩이에 던져 죽게 되었을 때에 죽는 것이 불쌍하여 그

를 살리려고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동생은 우리의 골육(骨肉)인데 죽이는 것은 부당하니 이스마엘 대상에게 팔자”고 제안하여 요셉을 상인들에게 은 20개를 받고 팔게 되어 동생을 살린 것이다.(창 37장)

홍년으로 인하여 아굽의 아들들이 애굽에 양식을 사려고 갔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형들의 죄를 벌하려는 뜻으로 그들을 일시적으로 억울하고 안타깝게 하였으니 위급한 시점에서 유다가 대변자로 나서 민첩하고 회색하는 정신으로 일을 처리하였으니 선행을 하였다.(창 44장)

유다의 악행은 자부 다말과 동침한 사건이다. 본문 기사에서 유다는 자부가 기생으로 위장한 관계로 자부로 알지 못하고 범행하였다고 기록하였으나 여자의 정체를 모르고 범행하였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캄캄한 밤에 유부녀와 얼굴도 확인하지 않고 순간적으로 상대한 것이 아니고 저녁때에 창녀로 변신한 다말이 요염한 자태로 유인하였다. 유다는 부인과 사별하고 흠비로 여러 달을 지내면서 여자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창녀를 보니 음욕이 발동하여 창녀에게 접근하여 정을 통하자고 말하니 창녀로 위장한 자부 다말은 화대(몸값)를 요구하였다.

당시 화대는 은이요 보통 상거래는 물물교환이니 유다는 창녀를 상대할 때 은도 없고 물품도 없었고로 담보물을 제공하고 하룻밤을 기생과 지내기로 하였다.

담보물로 도장과 지팡이와 끈을 창녀에게 건네주고 방에 들어갔다.

남녀의 성희롱을 상상할 때 몸을 파는 창녀를 상대하는 남자로서 아무 말 없이 눈을 감고 행동하는 사람은 없는 것이다. 마음껏 기분을 풀려고 창녀를 상대하는 자는 희롱과 농담, 잡담을 하다가 성교를 한다고 한다.

자부가 창녀의 옷을 입고 얼굴을 면박으로 가리운 관계로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하였으나 방에 들어가 여자가 옷을 벗고 남자를 포옹할 때는 여자의 정체를 알게 된 것이다. 자부 다말은 불레셋 이방인으로 그들은 정조 관념이 없고 존속과 성교하는 것도 보편화되어 있어 시부와 성교하는 것을 양심의 가책으로 느끼지 않은 것이다.

여러 해 동안 한 집에 살던 자부의 얼굴과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동침하였다고 말한다면 누가 인정하리오. 유다는 자부임을 알아보았으나 남녀의 강렬한 욕정은 동물같이 행동하게 한 것이다.

하룻밤 상대한 자부는 수태하여 쌍둥이를 생산하였으니 베레스와 세라다. 자부의 몸에서 출생한 자가 선민의 핵심이 되고 그 후손이 주권과 왕권을 소유하고 지금까지 위대한 민족으로 활동하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다.(창 38장 참조)

하나님의 신이 부친의 입을 통하여 선약간 상과 벌을 내리는 심판에서 서모를

범한 루우벤은 본인과 그의 자손에게마져 화가 임하였는데 자부와 간통한 유다의 죄악은 왜 심판하지 않았을까. 서모를 범한 것보다 자부를 범한 것은 도덕상으로나 양심상으로 더 부끄러운 죄악이니 루우벤 이상의 벌을 받아야 당연하다.

여기에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전략이 숨어있으니 유다로 하여금 실로가 올 때까지 마귀와 싸우는 방패로 이용하는 것이다. 유대교와 예수교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오지 않으나 그들을 통하여 성경이 보존되어 오늘에 이르렀고 왕국시대 선지자들이 활동하며 예언서를 후세에 남김으로써 길잡이가 되고 있다.

유다를 사자로 표현한 것은 최강자라는 뜻이니 유다 지파는 출애굽 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12지파 가운데 선봉자가 되고 유다의 자손 다윗이 왕국을 세운 후 유다의 명성은 절정에 달했다. 흠은 왕의 상징이니 백성이 왕을 호위하고 문무 백관들이 왕에게 예를 거행할 때 옛날 왕들은 금을 들어 답례를 하였다.

실로에 관하여 살펴본다면, 기독교 학자들은 예수로 단정하여 해석하고 있다. 유다에 관하여 예언하면서 실로를 말한 것으로 유다 계통에서 실로가 온다고 강조하고 다른 계통에서 실로가 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단정한다. 예수가 유다의 자손 다윗 왕의 혈통으로 출생한고로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요 동시에 실로로 왔

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2천년 전 예수가 실로로 와서 인류의 죄를 대속(代贖)하고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가 때가 되어 공중 재림하면 만왕의 왕이 되는데 만민 중에 구원 얻은 자들이 공중 하늘에서 예수를 영접하여 경배하게 된다고 본문의 “만민이 그에게 복종한다”는 말을 이용하여 주장하고 있다. 예수교가 최고로 인류를 기만하는 것은 예수가 살아있어 재림할 것이라고 믿는 것인데 이것이 비성경적이다. 성경은 실로가 오시면 땅에서 마귀 세력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므로 만민이 그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언약은 실로가 두 번 온다는 재림이 없으니 예수교가 기다리는 예수는 영원토록 올 수 없으니 2천년 전에 죽어 소멸된 사람이 살아 올 수 없다.

모세 시대부터 교권을 전수하여 법통을 지장하는 유대교의, 유대당 예루살렘으로 실로가 임한다는 시온주의 사상도 헛된 소망이니 4천년 긴 세월 피흘리며 싸우는 그 땅에 실로는 임하지 않는다. 만민의 도성이라는 예루살렘을 천년 전부터 유대교와 회교가 도시를 양분하여 싸우고 있으니 마귀 세상이 계속되는 기간은 통일될 수 없는 운명에 처해 있다.

- 다음호에 계속

차승도

한 권의 책이 탄생하기까지



실천 동기와 결실

2022년 1월 17일 오후 2시 30분경에 『삼수의 원리와 완성자』 책이 해인출판사에 도착한다고 한다. 출품문에서 기다리는데 갑자기 눈발이 날리기 시작한다. 도착 예정시간 5분이 지나서 책을 실은 스타렉스가 도착했다. 나는 어떤 중대한 일을 할 때 천지자연의 현상과 결부하여 좋은 징조인지 아닌지를 생각하는 습관이 있다. 각국 정상들도 서로 만나는 날에 눈이 내리면 “귀한 손님이 오시니 상스러운 눈이 내린다.”라고 덕담한다. 그래서 나역

시 책을 실은 차가 눈보라를 일으키는 속에서 도착하는 모습을 보고 엉당히 길조로 여기고 싶었다. 한편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렇게 눈이 와서 도로가 미끄러져 사람들에게 불편을 준다면 어쨌든 꼭 길조로만 단정할 수 있겠는가?’라고 자문하는 것이었다. 다행히 눈은 그치고 신령한 기운에 의해 눈은 영하의 날씨에도 얼지 못한 채 모조리 증발되었다. 좋은 징조다.

책을 출판하기 위해 집을 팔았다는 소문을 듣고 어린 나이에 십적으로 무척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대학생 때 “한평생

살면서 책 한 권을 쓴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라는 철학 교수의 말씀이 나의 가슴으로 와서 쫓겨갔다.

철학적 사유의 한계에 부딪혀 천길만길 낭떠러지와 마주한 절벽 끝에 홀로 서게 되면, 결국 철학도에서 신(神)에게 귀의하는 종교인으로 갈아탄다고 중학교의 불알 친구가 말했던 것처럼, 그 말대로 나는 죽음을 택하지 않는 대신에 신앙의 길을 택하였다. 그리고 150만 신자를 거느린 신앙촌의 박 장로님이 “이렇게 많은 식구들 중에 책을 쓰는 자가 없다. 한 사람이 백 명을 전도하고 한 사람이 천 명을 전도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쏟는 공력에 비하면 책 한 권은 단시간에 헤아릴 수 없는 인생들을 이끌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못내 아쉬워했다는 사연을 전도관 관장 출신의 모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다.

사람은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진다고 했다. “나는 꼭 그런 책을 내고 말 거야.”라고 다짐하고 다짐했다. 신앙생활 34년 만에 바로 그런 책이 나왔다. 책 제목 『삼수

의 원리와 완성자』이다. 이 책은 한 사람의 개인 작품이라고 할 수 없다. 앞서서 신앙했던 선배님들이 남긴 책들을 토대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점은 완성자 주님의 설교 말씀을 전교인들이 일심동체가 되어 녹취함으로써 그 결과 이간자의 일대기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다. 특히 이 책의 장점으로 한 페이지마다 요약문을 대신하는 소제목을 달아 독자들이 읽는데 전혀 지루함을 느끼지 않고 몰입할 수 있게 하였다.

에피소드와 희망 그리고 확산

책의 편집과 디자인은 외주로 맡겼다. 책 제작 비용 - 책의 종류와 편집의 복잡도에 따라 페이지 1쪽 당 4천원 하기도 하고 1만원을 훌쩍 넘기도 한다 - 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전문 편집디자인에 의해 만들어진 책은 확실히 고급스럽고 소장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킨다. 『삼수의 원리와 완성자』의 책 편집이 거의 끝날 무렵에 전문 편집디자인이 해인출판사 사

무실에 직접 방문하였다. 그리고 그 편집 디자인이 책 내용에 너무나 감동했다면서 50만 원만 받겠다(참고로 655페이지의 책은 디자인 비용이 수백만이나 든다)고 한다. 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예배에 참석하여 이간자의 설교 말씀을 듣고 싶다고 한다.

그리하여 전례 없는 편집디자인의 글이 『삼수의 원리와 완성자』 후기로 실리게 된 것이다.

이제 이 책을 읽기만 하면 누구나 감동하고 탄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선다. 필박 없이 자란 종교는 온실의 화초와 같아서 시간만 어느 정도 지나면 금세 시들고 만다.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천대 멸시를 받았으며 심지어 지상의 각종 언론매체에 의한 왜곡된 보도로 제단이 미지가 얼마나 실추되었던가? 그리하여 만들어진 책은 확실히 고급스럽고 소장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킨다. 『삼수의 원리와 완성자』의 책 편집이 거의 끝날 무렵에 전문 편집디자인이 해인출판사 사

사필귀정事必歸正, 전도의 문을 열다

이제 이 책 한 권을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한테 선물해도 건네는 손이 부끄럽지 않을 것 같다. 인터넷 서점을 통해서 『삼수의 원리와 완성자』를 국내외 정세를 주도하는 데 영향력 있는 인물들에게 보내는 운동을 활성화하자. 오만원이 아깝고 비싼가? 구세주의 일대기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보물 중의 보물이다. 현재 우리가 신고 있는 신발 값은 얼마이며 한 켤레만으로도 만족하는가? 신발은 신고 다니면 닳아져 또 새로 돈을 들여 사야 한다. 그러나 이 책은 받는 사람들에게 영원히 닳지 않는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 어느 것이 가치가 있고 어느 곳에 투자해야 하나님 기뻐하실까?

만사가 사필귀정이다. 완성자의 진리 복음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미완성의 하나님인 인간을 불쌍히 여기고 온전한 완성의 하나님으로 거듭나게 하는 곳으로 인도하고자 총력을 기울이자!*

박태선 기자

석가모니는 미륵을 기다렸다 <31>



석가모니는 줄곧 미륵만 기다렸다 <31>

하늘나라(天國) 극락이 되는 곳은 어디일까? 1-1

불설아미타경(佛說阿彌陀經)
舍利弗 彼佛光明無量 照十方國無所障礙 是故號為阿彌陀

사리불 피불광명무량 조십방국무소장애 시고호위아미타
又舍利弗 彼佛壽命 命及其人民無量無邊 阿僧祇劫 故名阿彌陀
우사리불 피불수 명급기인민무량무변 아승지겁 고평아미타

사리불야, 저 부처님은 빛(甘露)의 밝음이 한량이고 시방(우주)의 나라들을 비침에 있어 가로막고 방해하는 것이 없으므로 아미타라고 부르느니라.
또 사리불야, 저 부처님과 그(나라의) 사람

들은 한량없고 가히 끝없을 정도의 아승지겁의 수명을 가지므로 아미타 라고 이르느니라

아미타경(阿彌陀經)
今現在說法 舍利弗 彼土何故名為極樂 其國衆生無有衆苦 但受諸樂故名極樂
금현재설법 사리불 피토하고명위극락 기국중생무유중고 단수제락고명극락
지금 현재 법을 설하고 계신다.

사리불야, 저 세계를 무슨 까닭으로 극락이라 하는가? 그 나라 중생은 온갖 괴로움이 없고, 다만 모든 즐거움만 받아서 이름을 극락이라고 한다.

영생의 역사는 구세주의 얼굴에서 빛을 발할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때가 심판일입니다.

구세주 조희성 하나님! 백보좌 심판자가 되어 죄인은 지옥으로 의인은 천국으로 보내게 됩니다.

천국과 지옥은 따로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구세주 조희성 하나님으로부터 발산되는 빛에 의해 이 우주가 의인들에게는 천국이 되고 동시에 죄인들에게는 뜨거워서 못 견디며 필멸 뿜게 되는 지옥으로 화하게 되는 것입니다(승리진경, 백보좌심판 2장).

그때 구세주가 발하는 빛에 의해 50% 이상 이루어진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나 50%도 이루어지지 못한 사람들은 구세주의 빛이 발할 때 하나님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죄인인 상태로 남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변화된 사람들은 온 우주를 날아다니면서 기쁨과 쾌락을 누리며 영생하지만 죄인들은 하나님에게서 발하는 뜨거운 빛으로 말미암아 죽지도 못하고 필멸 뿜면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최초의 하늘나라는 어디일까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며 전 인류가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은 중요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하늘나라가 무너진 곳에서 이루어질 곳이 동쪽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 아굽의 12아들에게 미래에 되어질 일을 축복하며 예언을 합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섬의 뱀이요 셋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창세기 49장 [개역개정] 16-18



아마고에 아미타도(山越 阿彌陀圖) _ 교토국립박물관 소장

Dan shall judge his people, as one of the tribes of Israel.
Dan shall be a serpent by the way, an adder in the path, that biteth the horse heels, so that his rider shall fall backward.
I have waited for thy salvation, O LORD.
Genesis 49장 [KJV] 16-18

但必判斷他的民, 作以色列支派之一。
但必作道上的蛇, 路中的虺, 咬伤马蹄, 使骑马的墜落于后。
耶和華阿, 我向来等候你的救恩。 创世记 49 [简体] 16-18*

明鐘